

중등학교의 교과교실형 교사 도입에 관한 건축계획적 고찰

-수준별 이동식 수업 실시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f Architectural Planning in view of a current situation of Individualized Interactive Learning Approach (IILA) in Middle and High Schools

류 호 섭*

Rieu, Ho-Seoup

ABSTRACT

A Considerable number of middle and high schools ha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allows the students to move from one class to another according to their academic achievements. It is, however, performed in existing classrooms with uniform pattern, corresponding to the launch of the 7th curriculum (scheduled to practice in 2000).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IILA and to collect the teachers opinions and their demands regarding spatial change to accommodate IILA effectively. This research is also to acquire a fundamental data to set up a prototype for designing a school building for IILA in future.

The research process includes surveying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IILA in 136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Pusan, and performing interviews for 9 school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lack of classrooms to comply IILA in most cases and inconvenience resulted in moving from class to class. It also showed that majority of students experienced unhandy due to limited lockers for the personal belongings. It is also found that the IILA was not a practice for offering various teaching methods but simply an aspect of grouping students based upon their academic achievements.

키워드 : 중등학교, 학교시설, 수준별 이동식 수업, 제7차 교육과정, 건축계획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부터 실시하고자 준비되고 있는 제 7차 교

육과정은 중등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열린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학습운영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발맞추어 비교적 많은 중등학교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지정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¹⁾고 한다. 그

*정회원,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러나 일선 학교들의 현황을 보면 이 수준별 수업에 대한 개념과 실시방법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지 않은 듯 싶다. 또한 이들 학교들은 기존 교사에서, 학습공간의 부족, 학생들의 이동시의 문제점, 한정된 교실 크기나 수로 인한 학습집단 편성시의 한계 등의 여러 문제점을 수반한 채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형편이며, 본격적인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면 새로운 유형의 교사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르러 열린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면적의 향상이나 공간구성등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등장하고 있으나 중등학교 건축에서는 1997년 서울 성동교육청의 광희중학교가 교과교실형으로 계획·건축중이므로 이 학교가 신축되면 최초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중등학교의 학교건축을 보면 초등학교와 거의 다를바 없는 보통교실 중심(9.0M×7.5M)의 획일적인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하기 위하여는 학습공간의 규모가 학습집단의 규모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각 특별교실도 보다 전문적인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이나 설비면까지도 향상을 가져와야 함은 물론이며, 교사전체의 공간구성도 이제와는 달리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필요가 높다.

실제로 1학년의 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전 교과에 걸쳐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중등중학교의 경우는 기존의 특별교실형의 교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에 3교실, 기타 교과에 2교실씩을 교과전용의 교실로 배당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 2학년에서 각각 6개학급 규모로 대부분의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한가람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교과에 3교실, 사회교과에 4교실을 교과전용의 교실로 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각 학교에서는 학교공간의 상황과 수준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바, 자칫 교육개혁이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적과는 유리된 실태가 만연될까 하는 우려조차 있다.

1) 전국 인문계 고교중 88.2%에 해당하는 998개교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전체의 69.4%에 해당하는 1,891개교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중·고 수준별 수업 정착", 조선일보, 1997.6.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취지에 따라 우리보다는 앞서 중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학습방법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또한 교사의 형태에서도 일찍이 교과교실형을 먼저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교과교실형의 교사의 개선 동향과 문제점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의 실시 현황과 그에 대응한 교실공간의 사용현황의 유형, 파악하고, 각 학교가 이를 실시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중등학교의 새로운 교사 유형으로 제시되리라 예상되는 교과교실형에 대한 건축계획적인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150개교, 고등학교 222개교를 대상으로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1997년 9월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에 있는 중등학교 9개교²⁾에 대해 교실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는 설문지 발송 및 회수율을 정리한 것이며 전체 136개교(36.56%)가 설문에 응답하여 주었다.

표 1. 설문조사의 내용구분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교수·학습 측면	학급수 현황, 실시과목, 실시학년, 수준별 분류방법, 분류단계
시설이용 측면	수준별 수업실시에 따른 학교의 대응, 수준별 수업에 이용되는 교실현황, 학생들의 수준별 이동현황, 이동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학생들의 소지품관리 장소 및 현황

표 2. 설문지 발송 및 회수율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부산	부산	서울		
발송	150(87/63)	68(41/27)	154(92/62)	372	
회수	70(42/28)	16(9/7)	47(30/17)	133	
회수율(%)	46.67	23.53	30.52	35.75	

* ()은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의 수를 나타내고 있음.

2) 금정중, 구서여중, 사직중, 동백중, 부흥중, 배정중, 모라중, 대동고, 해동고

비록 회수율이 기대보다는 낮지만 그 학교수는 본 연구목적상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실업계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무기한다.

2. 일본에서의 교과교실형 교사의 발달과정

학교운영방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특별교실형, 교과교실형, 종합교실형, 플라톤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각각에 대한 개념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교과교실형의 개념과 아울러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 그 발달과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1 교과교실형의 개념

교과교실형은 모든 교실을 교과 전용의 특별교실로 구성하는 평면형으로서 학생은 시간표에 의해 시간마다 이동하게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각 교과마다의 전문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과 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교실수가 적게되므로 공통학습 공간이나 생활 공간의 충실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급전용의 교실이 없으므로 인해 학급지도를 위한 교실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사물함등 생활용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³⁾

2.2 교과교실형 교사 발달 과정

일본에서 교과교실형의 교사의 효시는 고등학교에서는 1957년에 설립된 가나자와니수이(金澤二水)고교, 중학교에서는 1962년에 설립된 매구로다이니찌(日黒第一)중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학교의 시작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교과교실형의 평면교사는 이후 급속한 확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약 20여개 학교뿐이었으며, 그것도 고등학교 위주로 건설되어왔다. 그리고 이 동안에 건축된 학교의 평면을 보면 완전한 교과교실형의 학교뿐만 아니라 특별교실형과 교과교실형을 겸할 수 있는 형태의 학교(1982년 히비야(日比谷)고등학교)평면도 등장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교과교실형 교사건축의 학교운영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부분적으로 제기되었

다. 이러한 과정중에 교과교실형 교사의 단점으로서 학생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안정감이 없다,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다등의 문제로, 다시 특별교실형의 운영으로 회귀한 학교(秋田高等學校등)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등학교에 대한 공간구성 및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사용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건축계획적인 연구⁴⁾도 활발하게 되어 좀 더 본격적인 교과교실형 교사를 위한 개선점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목적하에 일본에서 1987년에 행한 필자의 연구⁵⁾에서 조사한 내용, 즉, 교육방법의 변화를 꾀하고자 했던 몇 중학교의 교육방법이나 공간사용의 실태를 언급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987년 당시는 일본에서도 중학교에서 개별화·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여러 유형의 학습방법이 중학교에서도 비로소 실시되기 시작하려는 시기였다. 당시 조사한 8개교의 학습시스템을 학습집단규모, 학습진도, 학습교재, 학습영역, 학습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는데, 크게 2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 하나는 학급범위내에서의 학습의 개별화·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복수 교과중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복수 교사가 지도하는 학습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전개시 학생들의 학습장소로서는 각 학교가 교실과 복도는 물론이거니와 도서실, 복도, 계단, 집회실, 상담실 등의 여러 장소를 사용하여 전개해 왔으며, 교사들은 교구의 부족과 아울러 공간 이용시의 불편함 점들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정중에 1988년 일본 문부성의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教育方法等の多様化に對應する學校施設のあり方について」)에서도 교과교실형의 검토가 제창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이후 일본에도 교육개혁의 움직임과 아울러 중학교를 포함해 신축교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이를 더욱 가속시키게 되는 계기는 1984년의 일본 문부성의 중학교 교사면적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확대(기준면적의 6% 향상)였다. 즉, 기준면적의 향상에 힘입어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약 30여개 학교가, 고등학교도 상당수의 학교가

4) 長澤 悟・金 承濟의 1인, 教科教室型運營中學校生徒の行動分析, 日本教育工學雜誌, 1986.1 의 다수

5) 長倉康彦・柳 浩燮의 2인, 個別化・個性化を日指す學習の類型, 日本教育工學會 第3會人會, 1987.10

3) 류 호섭 외 4인 번역, 학교건축의 번역 22쪽 참조, 도서출판 국제, 1995

교과교실형의 평면의 학교로 신축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공간의 구성시에도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교실형의 교사에 홈 베이(홈 베이스)라는 공간을 추구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1994년의 “고교교육개혁 모델의 침투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高校教育改革モデルの浸透可能性に関する實證的 研究」)⁶⁾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평면을 가진 17개 학교의 운영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한 결론으로, 향후의 고등학교운영방식으로서 교과교실형의 운영을 다시금 제안하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수준별 수업의 실시현황

3.1. 수준별 수업방법의 개념

수준별 교육방법이라 함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다양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자기주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율과 책무성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는 교육과정을 말한다.⁷⁾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과 인격을 존중하므로 능동적·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체제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교육과정이다. 교과성격과 교육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 보충형, 과목 선택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편성·운영하도록 되어있다⁸⁾.

6) 일본국립교육연구소에서 문부성 과학연구비 보조금을 받아 실시한 연구로 1994년 3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7) 이경환, 「제 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 교육월보, 1997. 4. p.68.
 8)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내용이 비교적 위계적으로 되어 집단 구성원들 간의 능력의 개인차가 심한 수학, 영어 등의 교과에 적용하여 학년별이 아니라 10단계 또는 4단계 등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며,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과목이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들간의 개인차가 심하지 않는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 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과목의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의 종류 및 난이도의 수준이 다양한 과목들을 대상으로 학생 자신의 필요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단계에서 편성·운영되는 과정을 말한다.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 교육월보, 1997, 4, p.69

3.2 수준별 수업의 실시현황

응답한 학교들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각실의 재배치를 한 학교가 중학교에서는 14개교, 고등학교에서는 10개교이어서 예상외로 많지 않았다. 아울러 교실 개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문의 응답현황은 표 3에 나타냈듯이 대부분의 학교가 아무런 개수가 없이 기존 교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이며 교실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학교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알수 있다. 교실개수 여부를 떠나 12개교가 교실을 교과교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과교실의 공간이나 설비의 질적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준별 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동시간의 조정 방법을 표 4에 나타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별히 조정된 시간없이 수업간 쉬는 시간에 이동하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이동을 위해 조정된 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적정 학생수와 수준별 단계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표 5와

표 3. 조사학교의 교실개수 현황 따른 응답현황

교실개수의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을 일부개수해 교과교실로 겸용사용한다.		2
교실을 일부개수해 교과교실로 전용사용한다.	2	2
유휴교실을 교과교실로 전용사용한다.	8	2
증축을 통해 교과교실로 전용사용한다.	1	-
교실을 아무런 변화없이 사용하고 있다.	55	60
도서관·특별교실을 이용해 수준별 수업을 한다.	2	-
1)+3)	1	-
2)+3)	1	-
합 계	70	66

표 4.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생 이동 시간 변화 내용

시간 변화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전체에 이동을 위해 고려된 시간이 있다.	11	12
수업중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한다.	2	2
보충수업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	1
조정된 시간 없이 수업간 쉬는 시간을 이용한다.	56	51
1)+2)	1	-
합 계	70	66

표 5. 1그룹에 대한 적정 학생수 범위

학생수 범위	중학교	고등학교
1~10명	13	2
11~20명	22	13
21~30명	34	42
31~40명	1	7
무응답	0	2
합 계	70	66

표 6에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공통적으로 21~30명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많기는 하나, 11~20명 사이도 비교적 많은 응답을 하고 있어 어느 쪽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수준별 단계에 있어서는 3과정이 적절한 단계분류로 나타났으나, 4과정과 무응답도 비교적 많아, 추후 보다 많은 학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7은 학년별 실시현황을 나타냈는데 1학년에서의 실시가 전체의 61.8%로 제일 많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학년에서의 실시비율이 높았다.

표 6. 적정 수준 분류 단계에 의한 의견

적정 수준 분류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2과정	-	-
3과정	36	34
4과정	11	11
2또는 3과정	-	2
무응답	19	13
합 계	70	66

표 7. 학년별 수준별 수업 실시현황

실시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비율(%)
1개 학년	1학년	51	33	84	61.8
	2학년	3	5	8	5.9
	3학년	0	4	4	2.9
2개이상 학년	1,2학년	9	11	20	14.7
	1,3학년	1	0	1	0.7
	2,3학년	2	2	4	2.9
1,2,3학년		4	11	15	11.0
합계		70	66	136	100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준별 수업의 실시학년과 더불어 실시과목을 표 8과 표 9에 나타냈다.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1과목만 실시하는 학교가 약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2과목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많았다. 1과목의 실시로서는 수학의 비율이 높았으며, 2과목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어와 수학을 실시하는 학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수학이 기초교과목이면서도 학생들의 수준차가 많은 교과목이므로, 수준별 수업의 실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영어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이유로는 입시위주의 과목선정을 한 결과가 아닐까도 추측된다.

표 8. 중학교의 수준별 수업 실시과목

과목수	1교과		2교과이상					전과목	합계
	1	2	3	4	5				
교과목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학교수	3	30	30	3	1	2	1	70	

표 9. 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식 수업 실시과목

과목수	1교과			2교과이상				합계	
	1	2	3	2	3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수학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일본	
학교수	1	6	26	2	22	2	6	1	66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등학교의 수준별 과정과 분류단계에 대한 현황을 표 10에 나타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분류 방법을 성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율적인 지도를 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한편 표는 생략하나, 교과별로의 수학과 영어에서의 수준별 분류단계는 상/하, A/B등 2과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중/하, 심화/기본/보충등 3과정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는 학교수

가 많았다.

표 10. 조사학교의 과목별 수준 분류방법 유형

분류 방법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일본	전과목
1)성적별로 분류한다	10	71	113	2	7	1	1
2)교사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분류한다	1	3	4	0	1	0	0
3)학생의 본인 희망으로 분류한다	0	1	1	0	0	0	0
1)+2)+3)	1	1	1	0	0	0	0
1)+3)	1	1	5	0	1	0	0

이와 같이 중등학교에 있어 수준별 수업의 실시현황을 앞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고등학교에 따른 특징이 거의 없는 듯하다.

3.3 수준별 이동식 수업실시 유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해 최종적인 학습집단이 어떠한 성격의 집단인가를 구분하고자 표 11과 같은 유형화

표 11. 유형화 요소의 내용구성

유형화요소	구분
수준별수업을 실시하는 학년	A.동일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B.과목에 따라 무학년제를 실시한다.
	C.과목에 상관없이 무학년제를 실시한다.
수준별그룹화를 위한 분류방법	a.모든 교과목에 대해 성적별로 분류한다.
	b.모든 교과목에 대해 흥미·자율적인 방법을 병행한다.
	c.모든 교과목에 대해 성적과 자율적인 방법으로 분류한다.
	d.교과목에 따라 흥미·자율적인 방법을 병행한다.
	e.교과내용에 따라 흥미·자율적인 방법을 병행한다.
수준별그룹의 분류단계	a.1과정으로 분류한다.
	b.2과정이상으로 분류한다.
	c.과목에 따라 a와 b를 병행하여 분류한다.
	d.교과내용에 따라서 과정을 임의로 분류한다.

요소로 구분해 상기 조사학교의 수준별 수업 실시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면 학습집단에 대응한 공간구성이라는 기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판단된다.

위의 유형화 요소를 토대로 현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등학교의 유형을 크게 Type-A, Type-B, Type-C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각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Type-A는 타율적 실시형으로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자율성에 있어서 그 정도가 낮은 학교유형으로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형이다.

Type-B는 반자율적 실시형으로 그 실시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약간이나마 반영된 형태로서 학생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과정을 선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Type-C는 자율적 실시형으로서 교과목과 교과내용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을 상당히 반영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3.4 수준별 수업시의 학급해체 유형

앞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한 중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의 실시유형 분류에 비해 교실이용 실태 및 그에 따른 유형화는 표 12의 학교를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학습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학급 해체(解體)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여기서, 학급 해체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표 12. 조사학교의 유형화 분류

	유형화 요소1	유형화 요소2	유형화 요소3	해당 학교수	학교별 유형화
중 학교	A	a	a	4	Type-A (타율적)
	A	a	b	60	
	A	c	a	1	Type-B (반자율적)
	A	c	b	1	
	A	d	b	1	Type-C (자율적)
	A	d	c	1	
A	e	b	2		
고 등 학교	A	a	a	3	Type-A (타율적)
	A	a	b	51	
	A	a	c	2	
	A	a	d	1	Type-B (반자율적)
	A	c	b	5	
	A	e	b	4	

수준별 수업의 방법과 분류 과정의 단계 등의 이유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위해 나타내는 행동 즉, 교실간의 이동 또는 교실내의 머무름 등에 의해 하나의 학급이 몇 개의 새로운 학습집단으로 재편성되는 해체과정을 말하며⁹⁾, 조사학교들의 학급 해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경우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명도 표 13에 나타내었다.

표 13. 조사학교의 수준별 수업과 학급해체 유형

학교명 (학년)	수준별 수업 관련사항	과목/주당 수업시간수	수준별 수업의 교과운영 내용	학급 해체 유형
금정중 (1학년)		수학/4	학급내 수준별 수업	I
구서여중 (1학년)		수학/2	학급내 수준별 수업	I
동백중 (2학년)		영어/4 수학/4	수준별 이동식 수업 + 방과후 수준별 수업*	III
모라중 (1, 2, 3학년)		영어/4 수학/4	수준별 이동식 수업 + 혼합반 수업*	IV
배정중 (1학년)		영어/4, 수학/4 과학/4	수준별 이동식 수업	III
부흥중 (2학년)		영어/4 수학/4 과학/4	수준별 이동식 수업 + 학급내 수준별 수업*	III
사직중 (1학년)		국어/4, 영어/4 수학/4, 사회/3 과학/4	수준별 이동식 수업	II
대동고 (1,2학년)		영어/1(2학년) 영어/2(1학년)	수준별 이동식 수업	III
해동고 (1학년)		수학/1	수준별 이동식 수업	III

참고) *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교과운영 내용임.

(1) 학급 해체 「유형 1」

「유형 1」은 학급의 해체 없이 단위 교실내에서 수준별 수업을 그룹별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는 교실내에서 좌석 배치의 다양화와 교육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시설·설비면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 목표 성취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교실에서는 기자재의 도입 및 좌석배치에 있어 교실공간이 협소하여 복도를 이용하는 등의 사례도 보았다.

9) 김상본, 教科選擇制の導入に伴う普通科高等學校のブロックプランに関する研究, 1996, pp.18~28

(2) 학급 해체 「유형 2」

「유형 2」는 하나의 학급이 전체적으로 이동하여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성격의 집단으로 재구성되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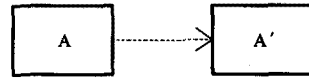


그림 1. 유형 2의 학급 해체 진행도

유형 2의 사직중은 1학년 10개 학급을 1반~5반, 6반~10반으로 2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룹내에서 교과교실제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수업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1그룹을 구성하는 5학급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실시하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에 대한 교과교실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학급별 아침조회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 수업시간을 학급단위로 학생들 스스로 이동하여 수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학급에서는 동일한 층내에서도 교실간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의 수업간 이동에 있어 불편함이 조사되었다.

(3) 학급 해체 「유형 3」

「유형 3」은 임의의 2개 학급, 또는 3개 학급이 2과정, 3과정의 수준별 단계로 분류되면서 각각의 학급이 하나의 교과교실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수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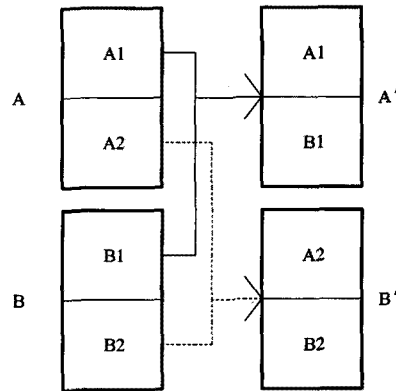


그림 2. 유형 3의 학급 해체 진행도

유형 3에 속하는 동백중, 부흥중, 대동고, 해동고

등은 학급 해체 진행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급수와 수준별 분류 단계가 일치함으로 해서 조사학교들이 한 학급의 학생수를 1/2씩, 또는 1/3씩 나눔과 함께 재편성함으로써 또하나의 새로운 학습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결국 기존 교실을 이용하므로 학생수 조절의 문제점과 타학급과 혼합된 수업활동이 진행되므로 좌석배치가 수업내용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달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2개집단이나 3개집단이나 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급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의 학급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형태, 즉 1~3반, 4~6반, 7~9반으로 구성하므로써 교실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도의 넓이가 기존의 학교들에 비해 상당히 좁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이동시 2개 학급의 경우보다는 더욱 혼란이 야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학급 해체(解體) 「유형 4」

마지막으로, 「유형 4」는 하나의 학급이 4과정의 수준별 단계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앞서 분석 결과 나타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분류단계와 학급수가 일치하는 경우와는 달리 수준별 분류단계와 학급수의 차이로 인해 일부 수준별 과정을 2개 학급으로 묶으므로 그룹화를 이루는 경우이다.

유형 4의 모라중은 1, 2, 3학년 전체 학급을 학년별로 6~7학급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그룹단위로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1~6반, 7~12반(2학년의 경우는 13반)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 한 개의 그룹내에는 수준별로 심화반(A), 성취반(B), 진보반(C), 노력반(D) 등 4개의 단계로 구별을 하여 단계별로 학생수의 차별화를 둠으로서 교육 목표를 성취하려 하고 있었다. 단계별 학생수와 학급수는 심화반은 50명, 성취반과 진보반은 45명, 노력반은 25명 정도이며 1년에 4번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시마다 반을 재편성하고 있다. 노력반의 경우는 학생수가 25명으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생당 개인지도의 성격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면에서도 선생님과 대화의 시간이 많아서므로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학급별 이동시 일부 학급은 층에서 층으로 이동하므로써 학생들의 교실간 이동거리가 긴 것이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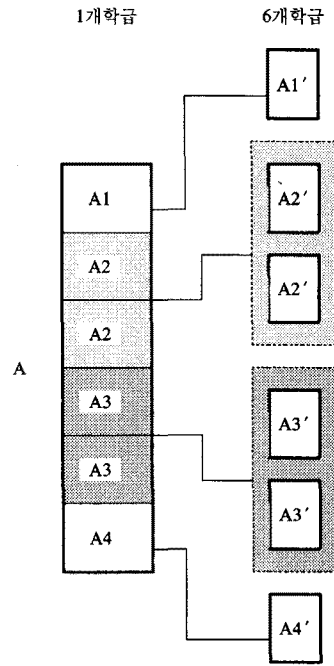


그림 3. 유형 4의 학급 해체 진행도

4. 결 론

이상으로 중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 실시현황을 조사·분석한 바 그 결과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준별 수업은 대부분의 학교가 동일학년의 집단으로, 주로 영어와 수학 과목 중심의 성적별 구분에 의한 2, 3단계로 분류된 다음에는 일제식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2) 현재 중등학교에서는 일부교과에 대해서, 또한 성적별 분류에 의해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율적 교육과정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것은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아울러 기존 학교들의 공간의 종류나 수, 규모등이 확일적이며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3) 학급해체 유형은 학년의 학급수, 학급당 인원수, 교과내용등과 공간의 종류나 수에 따라 여러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조사에서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 활동시에 보이는 학급해체는 4가지의 유형만이 조사되어, 현재의 상태는 매우 초보적이며 소

극적인 단계라 하겠다.

4) 이러한 현황은 기존의 교사를 활용할 수 없는 측면과 아직 수준별 수업에 대한 개념과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도 생각되나, 제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 수요자 중심의 학습 추구라는 의도와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5) 앞서 언급한 일본에서의 교과교실형 교사의 발달과정이나 그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중등학교의 계획을 위하여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교시설 계획시 교과 내용과 방법을 고려한 교실의 공간구성, 종류, 수에 대한 개선 및 그에 따른 시설·설비면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며, 학생들의 소지품 처리나 이동 동선의 최소화와 공간 이용율의 최적화를 꾀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류호섭외 4인, 미래학교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2. 류호섭외 5인, 한국 중등학교 발전모형 개발연구, 한국 열린교육 협의회, 1997.
3. 류호섭외 4인, 학교건축의 변혁, 국제출판사, 1995.
4.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교육개혁위원회, 1996.
5. 김상본, “教科選擇制の導入に伴う普通科高等學校のプロックプランに關する研究”, 九州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6.
6. 日本國立教育研究所, 高等教育改革モデルの浸透可能性に關する實證的研究, 1994.3
7. 이광석, 새로운 교육방법을 위한 중등학교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
8. 長澤悟·金承濟외 1인, 教科教室型運營中學校生徒の行動分析, 日本教育工學雜誌, Vol.9. 1986. 1
9. 長倉康彦·柳浩燮외 2인, 個別化·個性化を目指す學習の類型, 日本教育工學會第3會大會, 1987. 10